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주미대사 내정



▲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차기 주미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한국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강 내정자의 임명과 관련해 해당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아그레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으며,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과 주유엔대표부 공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현재는 미국과 아시아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봄비' 박인수 별세



'봄비'로 잘 알려진 원로가수 박인수(사진)가 18일(한국시간)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박인수는 수많은 명곡을 남겼지만 삶은 굴곡이 많았다. 그는 한국전쟁 중 어머니와 피란 열차에서 헤어졌다. 고아원을 떠돌던 그는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12세에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외로움과 향수에 시달리며 뉴욕 합탈가를 전전하다 귀국했다.

1960년대 말 신중현 사단에 합류했고, 1970년 신중현의 '봄비'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특히 "당신은 별을 보고 물어보셨나요"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만든 노래로, 이 곡이 인기를 끌면서 어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했다.

개헌 국민투표, 지방선거·총선 연계 추진

국정기획위 제시,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의제 포함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계해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이 20일(한국시간)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 첫머리를 차지한 개헌 과제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 등으로 구성됐다.

개헌의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대통령 거부권 제한·계엄 국회 통제 강화), 검찰 영장청구권 독립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제시됐다. 국민투표 시점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국민 투표 규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는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개혁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는 형안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구조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법무부 내 검사 보직과 파견 인원을 축소하고, 이를 특정직인 법무관으로 대체

해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분야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경찰국 폐지, 수사 전문성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첩사 기능 분산 후 폐지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전 시직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한국군 주도의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 정책에서는 향후 5년간 110만호의 공적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공분양주택과 공적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주택사업 인허가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으로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의 국회 보고를 강화하며, 부처별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123대 국정과제는 향후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개혁 입법, 추석 전 처리 합의

대통령실·여당, '검찰개혁 4법' 후속 논의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올해 추석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 자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한 결과,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세부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석 이후에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4법' 세부 입법과 보완적 수사권

조정 문제를 후속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분명히 했다"며 "추석 이후에도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강조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추석 전'과 '연내' 의견이 엇갈렸으나, 이번 회동으로 방향이 정리된 모양새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 특별 진료 ▶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 각종 보험 취급 —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